

▶영화제 화룡점정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침체기에 빠진 한국독립영화 돌파구 찾기

전주국제영화제의 화룡점정인 '전주시네마프로젝트'의 기자회견이 지난 2일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김영진 수석 프로그래머를 비롯해 <노무현입니다:N 프로젝트>의 이창재 감독, <시인의 사랑>의 김양희 감독, <초행>의 김대환 감독이 참석했다.

그 동안 한국영화 2편, 외국영화 1편으로 제작됐던 전주시네마프로젝트가 전례 없이 3편 모두 한국영화를 택한 것은 오랜 침체기에 빠진 한국독립영화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다.

김영진 프로그래머는 "작품 3편의 완성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탄탄했다"고 평했다. 이들 작품이 한국독립영화를 되살리는 희망의 불씨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창재 감독의 <노무현입니다:N 프로젝트>는 고 노무현 전대통령이 2002년 새천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을 그린다.

이 감독은 "민주당 경선은 정치인 노무현으로서의 터닝 포인트였다. 1·5선 국회의원이었다던 그의 대통령 도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소견을 밝혔다.

당시 노무현 후보는 경선 초기 지지율이 2%대에 그치는 군소세력에 불과했다. 낙선을 거듭하던 그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2002년 새천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의 대반전은 지역감정 철폐라는 노무현의 대의를 지지한 시민들의 자발적 희생 없이 설명하기 힘들 것이다.

감독은 노무현의 공과를 다루면서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마무리는 한국에서 얼마나 시민사회가 성숙할 수 있느냐의 여부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암시적으로 주장한다.

감독은 "노무현입니다:N 프로젝트"는 대통령 당선과 진보 승리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현대사에 있어 진보가 시민·노무현 콘텐트를 통해 순수한 감동과 희망을 했던 시기"라고 생각하며 "작품을 통해 관객들이 희망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시네마프로젝트'의 기자회견이 지난 2일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영진 수석 프로그래머를 비롯해 이창재·김양희·김대환 감독이 참석했다.

김양희 감독의 <시인의 사랑>은 제주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특이한 사랑이야기로 이제껏 한국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감성을 새롭게 조망하며 아름다움의 가치를 묻는다.

그는 "전주국제영화제와는 전주시네마프로젝트(JCP) 선정작 외에도 때려야 떨 수 없는 인연이 있다. 지난해 전주프로젝트마켓(JPM)에서 처음으로 '시인의 사랑'을 피칭하면서 시나리오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며 "JPM에 이어 JPC의 후보가 된 것 만으로도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감독은 "영화 속 제주의 토박이 시인 현택이는 살아가면서 한 번도 처절함과 고통을 겪어 보지 않은 철없는 남자"라며 "작품은 시인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시와 짝한 현실과의 괴리에서 고심하고 있던 차에 새로 생긴 도넛가게의 청년을 우

연히 만나게 되면서 겪게 되는 감정의 격랑을 따라 간다"고 설명했다.

김대환 감독의 관심사는 가족이다. 외면할 수도 끌어안는 수도 없는 가족의 역설을 로드무비의 형식을 빌려 표현한다. <초행>은 김 감독이 구상하고 있는 '가족 3부작'의 두 번째 편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김 감독은 "초행"은 수현과 지역의 본가가 있는 인천과 삼척을 배경으로 태백산맥을 오가는 여정을 담아냈다"고 소개했다. 그는 "영화는 소규모 스펙으로 유연하게 촬영해 그 여정에는 예상치 못했던 장면들도 표현된다"면서 이는 "때론 촬영할 때 어떤 신을 정해놓고 연출하기 보다는 항상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배우와 스태프들이 찾아가는 과정의 영화를 찍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18th



▶영화제, 어린이날 상영작 선배

아이들과 함께 극장에서 즐겨요

오늘 '리틀 허버'·내일 '정글북' 등 상영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충직)는 징검다리 연휴의 마지막 주말이자 어린이날을 맞아 많은 수의 가족단위 관객들이 영화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이와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상영작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우선 4일 저녁 7시 전주시 영화의 거리 내 '전주 돔'에서는 버려진 쌍둥이들을 데려다 키우고 싶은 열 살 소녀 '자카'와 이웃집 소년 '크리스티안'의 이야기를 다룬 감성 판타지 영화 <리틀 허버>가 상영된다. 모성이 결핍해지는 현실을 치유하기 위해 모성애를 강조했다는 평이다.

5일은 어린이날을 맞아 두 편의 애니메이션이 상영된다. 오후 2시에는 <패트와 매트: 똑딱똑딱 대소동>이 무료 상영되며, 저녁 7시에는 타파스 차크라바르티 감독의 <정글북>이 관객들을 찾아간다. 이날 상영되는 <정글북>은 디즈니 채널에서 선보였던 TV시리즈의 극장판이다.

상영이 끝난 뒤에는 공연이 펼쳐진다. 4일에는 심어송 라이터 요조의 신규 앨범 '나는 아직도 당신이 궁금하여 자다가도 일어납니다'의 발매 기념 쇼케이스가 예정되어 있다. 5일에는 <정글북>의 상영 후에는 김미로운 목소리의 혼성보컬 디에이드와 안장된 가창력, 트랜지한 멜로디의 심어송라이터 오웬이 전주 돔을 멜로디로 가득 채운다.

그밖에도 메가박스 전주(객사) 앞에 마련된 버스킹존에서는 매시간 다양한 공연이벤트가 펼쳐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한지문화축제 조직위, 한지예술대전 심사결과 발표

공예 이세령·한지미술 장명선씨 선정

전주한지문화축제 조직위원회(위원장 이남호)는 제23회 대한민국의 한지예술대전 심사결과 공예부분에 이세령(47·충남 보령)씨의 '지승지리와 멧반식'과 한지미술부분에 장명선(30·전북 군산)씨의 '국화(한지미술)'가 각각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세령씨



장명선씨

제21회 전주한지문화축제 일환으로 열린 올해 예술대전은 그동안 공예부분으로 한정됐던 범위를 한지미술 분야로 확대해 처음 치러진 대회로, 지난달 30일 응모작을 마감 결과 366개 작품이 출품됐다.

심사를 앞두고 열린 예술대전 운영위원회에서는 "화선지를 사용해 응모한 작품에 대해서 이번 대회까지만 허용하고, 다음 대전부터는 접수를 받지 않을 방침이다"고 결정한 바 있다.

2일 진행된 예술대전 심사에서 공예부분 심사를 맡은 김원순 심사위원장은 "출품된 전체 작품의 수준이 높아서 수상작을 쉽게 선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작품의 수준이 높았다"면서 "한지 활용에 새로운 기법과 테크닉이 결합된 작품들이 다수 출품돼 향후 공모전의 미래가 밝다"고 평했다.

한지미술분야 심사를 맡은 김연익 심사위원장은 "새로 마련된 한지미술분야에 200점 이상이 몰려 대회의 성공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예술대전이 대한민국의 한지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상을 수상한 이세령 작가와 장명선 작가에게는 각각 1천만원과 7백만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국회의장상과 국회의장상이 수여된다. /정해은 기자



전도연, 영화제에 티켓 1000매 기부

영화배우 전도연이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충직)의 '시네마엔젤'로 선정됐다. 영화제 사무처는 "전도연은 전주국제영화제 이충직 집행위원장에 영화제 관람티켓 1000장을 전달, 전주 지역 문화소외 계층에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버버리 코리아의 후원과 하퍼스비자와 함께 진행한 화보 촬영을 통해 조성됐다.

전주시 영화의 거리 내 '전주1924'에서 열린 이날 기부식에서 전도연은 "의미 있는 프로젝트와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보다 많은 분들이 영화를 통해 웃고 있어서 서로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이충직 집행위원장은 "전도연이 참여해 준 시네마엔젤 프로젝트 덕분에 더욱 많은 분들과 전주국제영화제를 함께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기부해주신 관람티켓은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기부식에는 시네마엔젤 프로젝트를 처음 제안한 이현승 감독도 함께했다. 평소 전도연과 돈독한 사이를 유지해온 이현승 감독은 "배우 전도연의 참여로 시네마엔젤 프로젝트 10주년이 더 빛나는 것 같다. 흔쾌히 시네마엔젤에 참여해준 전도연에게 이 자리를 통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라며 전도연의 두 번째 시네마엔젤 선정에 반색을 표했다. /정해은 기자

고사동 영화의 거리 내 옥토주차장 : 전주 라운지

나와, 영화보자

영화 상영 후 공연까지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 '전주 돔 상영' + '뮤지션, 영화와 만나다' |

4. 28 Fri 19:00~

<파리의 밤이 열리면>

+ 공연: 페퍼톤스/솔루션스

4. 29 Sat 19:00

<아수라>

4. 30 Sun 16:00~

<이반 차레비치와 공주>

19:00~

<내 사랑>

5. 1 Mon 19:00~

<리베라시옹 데이>

+ 공연: 라이바흐

5. 2 Tue 19:00~

<마스터>

5. 3 Wed 19:00~

<로스트 인 파리>

+ 공연: 멜로망스/치즈

5. 4 Tur 19:00~

<리틀 허버>

+ 스페셜 공연: 요조 "나.아.당.궁"

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스

5. 5 Fri 14:00~

<패트와 매트:>

똑딱똑딱 대소동(무료상영)

19:00~

<정글북>

+ 무료공연: 디에이드

(어쿠스틱 콜라보)/오웬

※ 아티스트 일정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Jeonju Intl. Film Festival

전주국제영화제 전주 돔 상영 Jeonju Dome Screening